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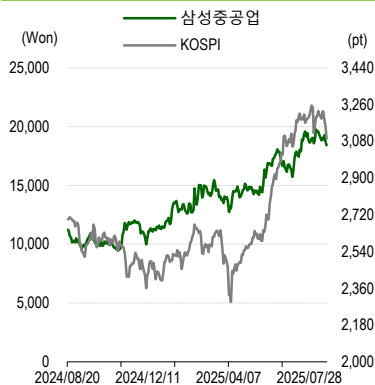
LNG선 수주잔고 1위 복귀 시도

기업분석
2025. 08. 21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Stock Info



LNG선 6척 수주계약 체결

삼성중공업은 LNG선 6척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선가는 척 당 2.55~2.59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 가격 2.5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수주계약 체결로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잔고는 61척으로 늘었고 62척의 한화오션과 격차를 대폭 줄였다. 수주계약 부진으로 후동중화조선에 LNG선 수주잔고 역전 직전의 상황에 놓였던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계약으로 연말이면 한화오션을 제치고 LNG선 수주잔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화오션에서 선박 건조 지연에 관한 공시가 간간히 발생되고는 있지만 향후 4개월후면 한화오션의 LNG선 인도량으로 수주잔고는 삼성중공업에 뒤처지는 결과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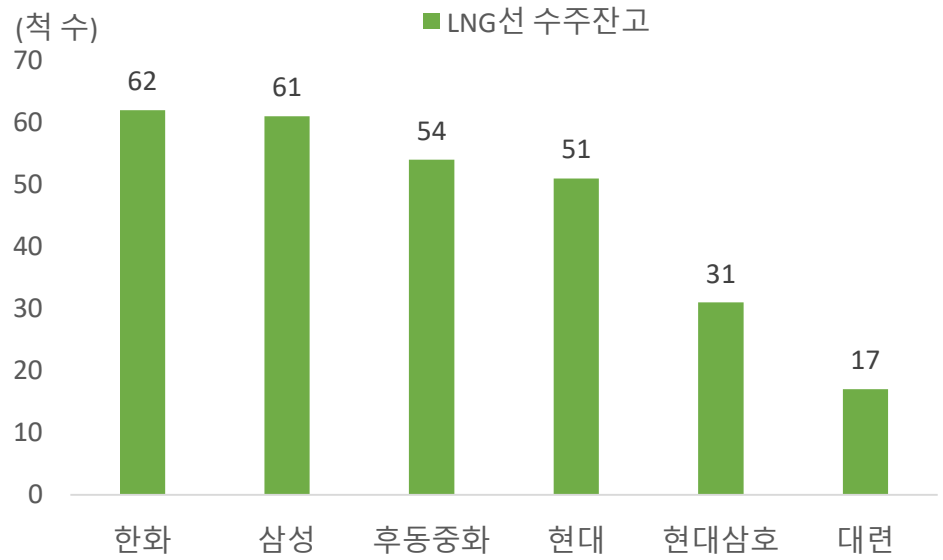
LNG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오랜만의 LNG선 6척 수주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는 늘어났지만 LNG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카타르에서 추가적인 LNG선 발주 전망이 강조되고 있지만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국에서는 LNG수요를 줄여나가고 있고 LNG선 용선 시장의 약세 영향으로 추가적인 LNG선 발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LNG선 하나의 선종에 의존하는 사이 탱커, 컨테이너선, 카 케리어 등 다른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한국 조선업의 시장은 매우 좁아지는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선가와 운임 약세의 부담

글로벌 LNG 수요가 둔화되면서 LNG선박 용선료와 운임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LNG선 가격은 여전히 2억 달러를 훌쩍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선주들이 LNG선 발주 수요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은 LNG 수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카타르와 같은 직접적인 LNG선 발주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낮은 운임과 높은 선가의 상황을 선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LNG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트레보트 리서치 유료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